

## 신앙을 전파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 구성

선교사들은 신도를 늘리기 위해 먼저 지역 다이묘(영주)들에게 가르침을 설파하고 개종시킨 후, 이들을 통해 가신과 주민들을 단체로 개종시키는 방법을 선택했다. 다이묘가 개종에 응하지 않는다면 유럽에서 가져온 물품들을 선물하여 영지 내에서 선교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했다.

규슈, 야마구치, 기나이(당시의 교(지금의 교토)에 가까운 지역들) 지방에서 포교 활동을 하던 선교사들은 가르침을 설파한 마을이나 마을의 유력자 중에서 여러 명의 신앙 지도자를 선출했다. 이 같은 방식을 통해 선교사가 없어도 자신들만의 힘으로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할 수 있었다. 지역의 조직은 자비조(慈悲組)라고 불리며, 1587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리스도교 신부의 추방령을 내린 후에도 이어졌다. 아리마, 오무라, 아마쿠사 지역에는 신앙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해 콘프라리아(信心會, 신심회)라는 조직도 만들어졌다.

이처럼 적극적으로 활동을 펼친 결과, 발리냐노는 일본 예수회를 교아의 포교구에서 독립시키고 ‘시모(지금의 아리마와 나가사키)’, ‘분고(지금의 벳푸와 오이타)’, ‘미야코(지금의 교토)’의 3개 교구로 분리한 준관구로 삼았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예수회는 일본에서 그리스도교 포교를 한층 확대할 수 있었으며, 이외에도 일본의 정치와 사회에 관한 자세한 보고서를 정리하여 매년 로마에 있는 예수회 본부로 보낼 수 있었다.

(삽화: 쇼지 요시타카)